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①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②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③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①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②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③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①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②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③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①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②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③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①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②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③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목차

✦ 나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 ····· 3

✦ 별빛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더 흘렀다 ····· 7

✦ 그 골목의 가로등은 왜 항상 세 번 깜빡였을까 ····· 12

✦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답장은 이미 와 있었다 ····· 18

✦ 시계탑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24

✦ 잃어버린 우산을 찾으러 다시 그 역에 갔다 ····· 31

✦ 눈사람이 녹기 전에 꼭 해야 했던 말 ····· 36

✦ 기억 속 도서관은 왜 점점 작아지는가 ····· 41

✦ 두 번째 겨울, 같은 창가에서 ····· 47

✦ 마지막 열차는 언제나 한 칸이 비어 있다 ····· 52

✦ 그림자가 먼저 떠나기 시작했다 ····· 58

✦ 봄이 오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 ····· 63

별빛 아래 잠든 마을

밤하늘 별빛 아래 잠든 마을
고요한 숨결 따라 꿈이 흐르네
창가에 비친 달빛 한 조각
엄마의 자장가 속에 녹아드네

봄비 내리는 창가에서

봄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 세며 그대를 생각하네
젖은 유리창 너머 흐릿한 세상
우리 사랑도 저렇게 번져가네

가을 산길을 걸으며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
바람에 실려 내 손에 앉네
말없이 걷는 이 산길 위
우리 사이 흐르는 건 정이라네

겨울 밤 난로 곁에서

눈 내리는 겨울 밤 난로 곁에
둘이 앉아 군밤을 까먹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그 속에 묻어둔 내 마음

여름 바다 모래사장

파도 소리 들려오는 모래사장
발자국 남기며 걸어가네
짠 내음 가득한 바닷바람
그대 손 잡고 웃음 짓네

첫눈 오는 날 편지

첫눈 오는 날 편지를 쓰네
하얀 종이 위에 마음을 담아
보내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리움은 자꾸만 쌓여가네

봄날 벚꽃 아래

벚꽃 잎 흩날리는 봄날
그대 웃는 얼굴 떠오르네
꽃잎 따라 흘러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 더 아름답네

가을 산길을 걸으며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
바람에 실려 내 손에 앉네
말없이 걷는 이 산길 위
우리 사이 흐르는 건 정이라네

겨울 밤 난로 곁에서

눈 내리는 겨울 밤 난로 곁에
둘이 앉아 군밤을 까먹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그 속에 묻어둔 내 마음

여름 바다 모래사장

파도 소리 들려오는 모래사장
발자국 남기며 걸어가네
짠 내음 가득한 바닷바람
그대 손 잡고 웃음 짓네

첫눈 오는 날 편지

첫눈 오는 날 편지를 쓰네
하얀 종이 위에 마음을 담아
보내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리움은 자꾸만 쌓여가네

봄날 벚꽃 아래

벚꽃 잎 흩날리는 봄날
그대 웃는 얼굴 떠오르네
꽃잎 따라 흘러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 더 아름답네

별빛 아래 잠든 마을

밤하늘 별빛 아래 잠든 마을
고요한 숨결 속에 꿈이 흐르네
—— 나루터 작은 배 한 척
물결 따라 흔들리며 노래하네

봄비 내리는 창가에서

봄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그리운 얼굴 하나 떠올리네
—— 빗소리 속에 묻어둔 이름
차마 부르지 못한 채 삼키네

가을 들녘의 노래

황금빛 들녘 위로 바람 불고
익어 가는 벼 이삭 고개 숙이네
—— 허수아비 홀로 서서
참새 떼 쫓으며 하루 저무네

겨울 산사의 밤

눈 덮인 산사의 밤은 깊고
처마 끝 풍경 소리 맑게 울리네
—— 스님 홀로 염불 외는
그 목소리 골짜기 따라 퍼지네

여름 장마 속 기다림

장맛비 쏟아지는 여름 날
그대 오는 길 걱정되어 서성이네
—— 우산 하나 들고 나선
발걸음 빗물에 젖어 무거워지네

가을 들녘의 노래

황금빛 들녘 위로 바람 불고
익어 가는 벼 이삭 고개 숙이네
—— 허수아비 홀로 서서
참새 떼 쫓으며 하루 저무네

겨울 산사의 밤

눈 덮인 산사의 밤은 깊고
처마 끝 풍경 소리 맑게 울리네
—— 스님 홀로 염불 외는
그 목소리 골짜기 따라 퍼지네

여름 장마 속 기다림

장맛비 쏟아지는 여름 날
그대 오는 길 걱정되어 서성이네
—— 우산 하나 들고 나선
발걸음 빗물에 젖어 무거워지네

별빛 아래 잠든 마을

밤하늘 별빛 아래 잠든 마을
고요한 숨결 속에 꿈이 흐르네
—— 나루터 작은 배 한 척
물결 따라 흔들리며 노래하네

봄비 내리는 창가에서

봄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그리운 얼굴 하나 떠올리네
—— 빗소리 속에 묻어둔 이름
차마 부르지 못한 채 삼키네